

美·유럽 ‘보안 리스크’ 차단 vs 인도 ‘AI 도약 기회’ 환영

딥시크, 개인정보 유출 논란

美 의회·국방부, 접속 전면 차단
유럽, GDPR 위반 가능성 조사 착수

인도, 저비용 AI로 기술 경쟁력 강화
기후 등 적용 확대, AI 패권 경쟁 가속

중국 AI 스타트업 딥시크(DeepSeek)의 충격파가 전 세계를 강타하고 있는 가운데, 개인정보 유출과 같은 보안 문제가 새로운 이슈로 부상하고 있다.

개인정보 유출 가능성을 이유로 딥시크 사용을 금지하는 국가가 있는가 하면, 기존 선진국 위주로 형성된 인공지능(AI) 기술의 독점 체제를 깰 수 있다는 기대감에 딥시크의 적극적인 수용을 권장하는 국가들도 나오고 있는 것.

2일 블룸버그 통신 등 외신에 따르면 전 세계 주요 기업과 정부 기관들이 딥시크가 개발한 AI 추론 모델 ‘딥시크 R1’의 접속을 차단하고 있다.

딥시크 R1은 6710억개의 매개변수를 학습한 대규모 언어모델(LLM)로, 저비용으로 GPT-4 수준의 성능을 구현해 큰 파장이 일으키고 있다. 특히 엔비디아의 중국 수출용으로 성능을 낮춰 출시한 H800 칩을 활용해 챗GPT-4에 근접한 성능을 갖췄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미국 정부 기관과 의회는 딥시크 사용을 전면 금지하며 강경 대응에 나서고 있다. 미 의회는 전화나 컴퓨터 등의 회 내 공용 장치에 딥시크 사용을 제한하고, 직원들에게도 딥시크를 설치하지 말 것을 지시했다. 의회는 “위험 인자들



28일 중국 수도 베이징의 한 사용자 휴대전화 화면에 딥시크(DeepSeek) 애플리케이션이 구동하고 있다. /AP·뉴스시

이 악의적 소프트웨어를 배포하고 장치를 감염시키기 위한 수단으로 이미 딥시크를 악용하고 있다”고 경고했다.

미 해군과 국방부도 직원들의 딥시크 접속을 차단했다. 특히 국방부는 일부 직원들이 딥시크를 사용한 사실을 확인한 후 접속 차단 조치를 단행한 것으로 전해졌다.

기업 차원에서도 딥시크 차단 움직임이 확산하고 있다. 네트워크 보안 업체 넷스코프에 따르면, 자사 고객사 중 52%가 이미 딥시크 접속을 완전히 차단했다.

사이버보안 기업 아르미스의 나디르 이즈라엘 최고기술책임자(CTO)는 “자사의 고객사 약 70%가 딥시크 접속 차단을 요구했다”며 “수백개의 기업, 특히 정부와 연관된 기업들이 중국 정부의 잠재적 데이터 유출 가능성과 개인정보 보호 취약성을 우려하고 있다”

고 밝혔다.

딥시크는 개인정보보호 약관에서 사용자 데이터를 중국 내 서버에 수집·저장하며, 이와 관련한 분쟁은 중국 정부 법률의 적용을 받는다고 명시하고 있다. 이러한 내용이 밝혀지면서 많은 기업과 정부 기관이 보안상의 이유로 딥시크의 AI 모델 R1과 앱 프로그래밍 인터페이스(API) 사용을 차단하고 있는 것이다.

유럽에서도 딥시크에 대한 규제 움직임이 본격화하고 있다. 이탈리아 데이터보호위원회는 딥시크의 개인정보 처리 방식에 대한 정보를 요청했으며, 이후 이탈리아 내 구글과 애플 앱스토어에서 딥시크 앱이 삭제됐다.

아일랜드 데이터보호위원회(DPC)도 딥시크에 아일랜드 사용자 관련 데이터 처리 정보를 제공하라는 서한을 보냈는데, 이 서한에는 유럽연합(EU)

개인정보 보호법(GDPR) 위반 가능성에 대한 우려를 표명했다.

프랑스 개인정보보호위원회(CNIL) 역시 딥시크의 AI 시스템 작동 방식과 데이터 보호 위험에 대한 자체 조사에 착수했다.

반면, 인도는 딥시크를 환영하는 분위기다. 미국과 유럽이 강경한 규제 태도를 보이는 것과 달리, 인도는 기술을 적극 활용하겠다는 입장이다. 아슈위니 바이슈노 인도 정보통신부 장관은 딥시크 기술을 높이 평가하며, 자국 내 서버에 딥시크 모델을 호스팅할 것이라고 밝혔다.

더 나아가 인도는 딥시크의 저가형 AI에 자국을 받아 연내 6개의 자체 파운데이션 AI 모델 개발 계획을 발표했다. 정부 지원을 통해 농업, 기후변화 등 다양한 분야에서 AI 활용을 확대할 계획이다.

인도 정부 관계자는 “인도에서 개발된 파운데이션 AI 모델들이 세계 최상위 모델과 경쟁할 수 있을 것”이라며 “AI 기술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정부 차원의 적극적인 지원이 이뤄질 것”이라고 말했다.

한 AI 보안 전문가는 “딥시크 R1이 저비용으로 GPT-4 수준의 성능을 구현한 점은 기술적 도약이라 할 수 있으나, 동시에 데이터 보안과 개인정보 보호 측면에서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라며 “국내에서도 딥시크 관련 보안 위협에 따른 대응책 마련은 물론 기술 발전의 잠재력을 최대한 활용할 수 있는 균형 잡힌 전략을 모색해야 한다”고 전했다.

/이혜민 기자 hyem@metroseoul.co.kr

‘오픈소스’ 딥시크 챗GPT와 차이는?

딥시크(DeepSeek)와 챗GPT(ChatGPT)의 차이는 무엇일까. 무엇보다 두 인공지능(AI) 기술은 오픈소스나, 폐쇄형이냐라는 차이가 있다. 챗GPT가 자사의 소스코드를 완전히 폐쇄해 자사 개발자들 외에는 전혀 확인할 수 없도록 한 것과 달리, 딥시크는 소스코드를 전면 공개하고 있는 것.

2일 AI업계에 따르면, 딥시크는 등장 이후 오픈소스라는 점에서도 큰 관심을 받고 있다.

딥시크, 오픈소스로 투명성 강조 챗GPT, 폐쇄형 독자적 개발 유지

딥시크가 오픈소스를 선택한 가장 큰 이유로 ‘투명성’을 꼽는다. AI 모델 성능의 핵심인 소스 코드를 공개하면, 외부 전문가들이 모델의 동작 과정을 직접 검증할 수 있다. 이러한 교차검증은 윤리적 편향성이나 프라이버시 문제와 같은 이슈를 사전에 점검하고 수정할 수 있게 해, AI를 개발하는 개발진이 가질 수 있는 편향성 등의 문제에서 자유로울 수 있다.

오픈소스는 무료로 배포돼 스타트업이나 중소기업이 비용 부담 없이 첨단 기술을 접할 수 있게 한다. 이에 사용자들은 필요에 따라 소스를 수정·확장할 수 있다.

/김서현 기자 seoh@

SKT “갤S25 출시 맞아 멤버십 혜택 2배”

배달·카페·문화 혜택 확대 25만명에 무료 쿠폰 지급

SK텔레콤이 2월에도 각종 멤버십 혜택을 선보인다고 2일 밝혔다. 특히 삼성전자 갤럭시 S25 공식 출시를 맞아 기존 혜택을 두 배로 제공하는 더블찬스 이벤트를 진행한다.

먼저 3일부터 7일까지 SK텔레콤 멤버십 회원은 배달의 민족에서 이용할 수 있는 처갓집 7000원 할인 쿠폰을 기존 1회가 아닌 2회 사용할 수 있다. 파riba 게뜨 1000원 구매시 200원 할인 또는 적립 혜택을 기간 내 2번 사용할 수 있다. SKT는 상시 제휴 외에도 T day, 0

day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고객들은 T day와 0 day 프로그램을 통해 무료 쿠폰, 할인 혜택 등 다양한 혜택을 누릴 수 있다.

이에 따라 T day 럭키찬스 응모 기회도 2회로 늘어난다. 2월 럭키찬스는 갤럭시 S25 관련 퀴즈 정답을 맞춘 고객 대상으로 추첨을 통해 스타벅스 커피와 케이크 세트를 제공한다. 추첨은 2월 중 두 차례 진행되어 총 5000명에게 혜택이 주어진다.

갤럭시 S25 공식 출시일인 2월 7일에는 25만명에게 푸레쥬르 리얼브라우니 무료 쿠폰을 선착순으로 제공하며, 쿠폰 사용 기간은 7일부터 26일까지다.

또한 매월 첫째 주 수요일 운영되는 T day 오픈런 쿠폰 사용 기간도 기존 10일에서 20일로 2배 길어진다.

만 13세부터 34세에 해당하는 SK텔레콤 청년 ‘영(0, Young)’ 고객은 10일, 20일에 운영되는 0day 혜택에 참여할 수 있다.

이달 0day 무료 혜택은 총 16만명에게 선착순으로 제공될 예정이다. 다이소 5000원권, 컴포즈 커피 아메리카노 무료 이용권을 선착순으로 하루 3만명씩 2회, 총 12만명에게 제공한다. 달콤커피와 갓잇 타코 1개 무료 쿠폰을 하루 2만명씩 2회, 총 4만명에게 제공한다.

/구남영 기자 koongja_tea@

카카오엔터 장윤중, ‘빌보드 파워 100’ 선정

2년 연속 글로벌 영향력 입증

카카오엔터테인먼트(카카오엔터) 장윤중 공동대표가 미국 음악 전문 매체 빌보드 ‘2025 빌보드 파워 100 리스트’에 2년 연속 이름을 올렸다. 글로벌 엔터테인먼트 산업에서의 영향력을 다

시 한번 입증한 것이다.

카카오엔터는 빌보드가 27일(현지시간) 발표한 리스트에서 장 대표를 멀티섹터 부문 15위로 선정했다고 2일 밝혔다. 이 리스트는 음악 산업에 영향력을 행사하는 인물을 레이블, 퍼블리싱, 멀티섹터 등 부문별로 선정해 발표하는

것으로, 올해 이름을 올린 한국인은 장 대표를 포함해 두 명이다.

빌보드는 장 대표가 K콘텐츠의 글로벌 확장을 주도하며, 다양한 프로젝트를 통해 K팝의 영역을 넓히고 있다고 평가했다. 특히 SM엔터테인먼트(SM엔터)와의 북미 통합 법인을 이끌며 글로벌 시장 공략을 강화한 점을 주목했다.

/이혜민 기자

LGU+, ‘유플투빨’ 누적 고객 800만명 돌파

20·40세대 여성 고객 가장 많이 참여

LG유플러스는 자사의 멤버십 혜택인 ‘유플투빨’을 통해 할인 혜택을 받은 고객이 누적 800만 명을 넘어섰다고 2일 밝혔다. 이는 유플투빨 출시 이후 9개월 만에 거둔 성과다.

지난해 4월 선보인 유플투빨은 매일 특정일에 다양한 브랜드와 제품의 할인 쿠폰을 제공하는 새로운 컨셉의 멤버십 혜택이다. 고객들은 통합 혜택 플랫폼 ‘U+멤버십’ 앱에 접속해 할인 쿠폰을 다운로드 받아 월말까지 사용할 수 있다.

LG유플러스가 지난 9개월간의 데이터를 분석한 결과, 유플투빨은 지난해 4월부터 올 1월까지 총 122곳의 제휴사가 참여해 월평균 45개의 할인 혜택을 제공한 것으로 나타났다. 고객은 매달 평균 5개 할인쿠폰을 내려받았으며 프로그램을 통해 제공한 할인 쿠폰은 금액으로 868억원에 이른다고 회사는 설명했다.

참여가 가장 많았던 혜택은 ▲CGV(콜라+음료 무료 증정) ▲베스킨라빈스(퀵터 사이즈 1만2천원 할인) ▲다이소(3천원권 쿠폰 증정) 순이었다.

누적 할인 금액이 많은 제휴사는 아웃백, 빙스, 피자헛 순이었다. 참여 고객은 20대와 40대 여성이 가장 비중이 높았으며 남성은 30, 40대가 참여율이 높았다.



LG유플러스 직원들이 유플투빨을 소개하는 모습. /LG유플러스

LG유플러스는 이번 달 유플투빨을 통해 ▲고반식당(2인분 이상 구매 시 삼겹살 1인분 무료) ▲CGV(팝콘+콜라 무료 증정) ▲할리스(커피 음료 1잔 무료) ▲파스쿠찌(조각케이스 최대 3000원 할인) 등 혜택을 제공할 예정이다.

이밖에도 50명을 대상으로 17일부터 21일까지 5일간 스와로브스키 도산파크 플래그십 스토어에서 도슨트 투어 등 이벤트에 참여할 수 있는 혜택도 제공할 방침이다.

장준영 LG유플러스 마케팅전략담당(상무)은 “유플투빨은 고객의 생활 속 필요를 실질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멤버십 서비스로 자리 잡았다”며 “앞으로도 차별화된 혜택을 통해 고객 만족도를 더욱 높이고, 멤버십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발전시킬 계획”이라고 밝혔다.

/구남영 기자